

선체도 못보고... '세월호특조위' 종료 위기

6월말 시한...박주민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예정

특조위·유가족 "활동 지연 감안 내년 2월까지 보장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6월 말 활동 만료를 앞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국민과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높다. 세월호 진상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선체조사도 마치지 못하고 활동을 마칠 위기에 처해있다.

'세월호 유가족 변호사'로 활동해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당장 30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재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특조위 활동기간 논란 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한을 오는 6월 말로 보고 7월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7월부터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사실상 세

월호 특조위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세월호 특별법 제7조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에 한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1일로 보고, 6개월 연장 과 함께 오는 6월 말 1년6개월의 활동기간이 끝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 야권은 특조위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해 8월4일을 실제 활동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특조위 조직이 구성되고, 예산이 배정된 시점이 지난해 8월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특조위 활동은 내년 2월3일까지 보장된다.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해야=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게 유가족과 특조위의 입장이다. 핵심은 오는 7월 말로 예정된 세월호 선체인양이다. 활동시한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 증거가 될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도 마치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해야 한다.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면 세월호 유가족은 그동안 비협조로 일관해온 정부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한다.

특조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방해와 비협조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장하지 않으면 진상규명 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성욱 세월호선체인양분과장은 "정부가 특조위 마저 무력화하면 실제로 우리 유가족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특조위 활동이 끝나면 정부는 형

식적으로 선체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종결할 게 뻔하다"고 덧붙였다.

◇6월 내 개정안 처리될까=특조위 예산이 보장되지 않으면 당장 7월부터 운영비는 물론 파견 공무원 복귀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

박주민 더민주 당선인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100여명의 의원과 당선인이 서명했다. 이 개정안은 특조위의 선체조사권 보장, 특조위 활동시한 보장, 특조위 조사활동의 독립성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 원구성 등이 늦어질 경우 6월 내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특조위 활동은 해수부가 법 해석만 다시 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문제"라며 "개정안도 세누리에서만 협조해 주면 6월 내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세월호 '선수 들기' 연기

선체 인양 지연 우려

세월호 인양 작업의 중요한 공정 중 하나인 '선수(벙머리) 들기'가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늦춰지면서 선체인양 지연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진도에서 열린 인양 과정 설명회 및 유가족 간담회에서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을 지난 28일부터 4일간 할 계획이었지만 기술적 보완사항이 생겨 다음달 1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전체 인양 일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양이 계획대로 진행되나"라는 유가족의 질문에 해수부 관계자는 "조금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욱 세월호선체인양분과장은 "이상황이든 7월 말 예정된 세월호 인양도 불확실하고, 8월부터는 태풍으로 작업 자체가 힘들어 연말까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



"플래시몹 다함께 해봐요" 지난 2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광주 프리디제스티벌'에 청년 300여명이 참여해 '임을 위한 행진곡' 등에 맞춰 춤을 추는 대규모 플래시몹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근로정신대 할머니 매일 법정투쟁 10년 책으로

미쓰비시 강제 노역 등 8인 재판 자료 엮어...내일 출판기념회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당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10년에 걸친 눈물과 통탄의 대일법정투쟁 기록이 책으로 출간됐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31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서 '법정에 새긴 진실-나고야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일본 소송 자료집'(신인,

704p) 출판 기념회를 연다. 이날은 할머니들이 일본으로 강제 연행된 지 꼭 72년 되는 날이다.

'법정에 새긴 진실'은 미쓰비시 강제 노역 피해자 박혜옥 할머니 등 8명이 1999년 3월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부터 지난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가 확정되기까지 10년 동안의 주요 재판 자

료를 엮은 책이다.

근로정신대 진상규명을 위해 30년 동안 노력해온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나고야 지원회) 활동도 처음으로 소개된다.

강제노역 이후 통탄의 세월을 살아야 했던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사연도 담겨 있다.

순천남국민학교 졸업 직후 미쓰비시로 동원된 박혜옥 할머니는 소송 제기 당시

"광주에 상당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있지만 위안부로 오인되는 것이 두려워 대부분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에 대해 자존심을 걸고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난 김혜옥 할머니는 "굶주림 속에 매 고고 공포에 떨면서 눈물로 중노동을 한 어린 소녀들의 호소당한 임금을 죽기 전에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책에는 일제의 전시 노동력 보충을 위한 광범위한 인력수탈 배경,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비참한 노동실태 등 조직적이고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들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김경민기자 kki@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0 달맞이 01:11
 해질 19:40 달질 13:00

아침 안개 주의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6/30	보성	맑음	13/29
목포	맑음	16/26	순천	맑음	17/30
여수	맑음	18/28	영광	맑음	14/28
나주	맑음	13/30	진도	맑음	15/26
완도	맑음	16/29	진주	맑음	14/30
구례	맑음	13/30	군산	맑음	14/26
강진	맑음	15/29	남원	맑음	13/30
해남	맑음	14/28	홍산도	맑음	16/22
장성	맑음	13/29			

◇비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안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
남부	안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남해	안바다(동)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서부	안바다(서)	북서~북	1.0~1.5	북서~북	1.0~1.5

◇생황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매우높음
- 미세먼지 한때나쁨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8:08	00:48
	20:42	13:46
여수	03:03	09:38
	15:51	21:43

◇주간 날씨

31(화)	6/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	☀	☀	☀	☀	☀	☀
17/29	17/30	17/30	17/30	18/28	17/29	17/29

'한센인 소송' 소록도서 특별 재판

법원 다음달 20일...낙태·감금 등 증언 청취·현장검증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폭력의 실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재판이 고흥 소록도에서 열린다. 법원이 한센인 소송에서 사건 현장인 소록도를 직접 찾아 실제 파악에 나서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다음달 20일 고흥군 도양읍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특별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센인 원고 2명과 소록도에 거주하는 한센인 1명으로부터 그들이 보고 겪은 정관수술·낙태 사실을 청취한다. 또 수술대, 인체해부대, 감금실, 사망 한센인을 불태운 화장터 등 소록도병원 시설에 대한 현장검증도 진행한다.

재판부는 특히 소록도에서 43년간 봉사활동을 했던 오스트리아 국적의 마리안느 스토거(82) 수녀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고국으로 돌아간 마리안느 수녀는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방한해 현재는 소록도에 머물고 있지만 다음달 7일께 출국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한센인 500여명은 2011년부터 수술을 강제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센인의 본질적 욕구와 천부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정관수술 피해자에 3000만원, 낙태 피해자에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재정 전국교육감협의회회장 선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이 후반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선출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지난 27일 강원도 속초에서 총회를 열고 후반기 협의회장으로 이 경기도교육감을 선출하는 등 임원단을 구성했다.

부회장으로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최고진 세종시교육감은 감사로 선출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증-81650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안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증-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 외상성척추손상, 척추증, 척추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편 방향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